



(3분기) 해외건설정책과장 주재 해외건설 대기업 간담회 결과보고

업무보고

2021. 7.7

□ 개요

- 목적 : 해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수주전략 지원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일시/장소 : '21. 7.7(수) 10시 /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장, 정경인 서기관, 박상우 사무관 등 5인
 - 협회 : 정책지원센터장, 지역실장 등 8인
 - 기업 :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해외건설기업 임직원 6인
 - KIND : 김소웅 실장
- 안건
 - 21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하반기 전망
 - 해외건설 정책지원방향 공유
 - 주요국* 해외건설 동향
 - * 미얀마, 리비아, 이란, 페루
 -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 정보 공유
 - * 케냐, 우즈베크, 베트남, 인니, 페루, UAE
 - 기타 :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주요 내용

○ 해외건설정책과장

- 참석해주신 기업을 비롯한 해외건설기업에서 노력한 결과 당초 올해 목표인 300억불의 50%(약 147.5억불)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마련된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목표를 잘 성취해내기 위해 본 간담회를 개최함

○ 기업별 주요 내용

■ DL E&C

-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란-미국 간의 핵 협상이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 예의 주시 중이고, 단기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미국 간 핵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이란 내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ESG 관련하여 플랜트 부문 내 신사업팀을 구성했고, Bio, 수소, 탄소절감 등 친환경 기조로 중점 추진

■ 현대건설

- 리비아의 경우 2개 현장 중단 중, 20여명의 직원 현지 체류하여 inspection 등 업무 중이며, 알제리 지사에서도 신경쓰고 있음. 치안은 이라크 대비 준수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쁘지 않음.
- 리비아는 GCC보다 양호한 시장으로 판단되며, 우리기업이 조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사관 재개설이나 우리기업인 출국 등을 지원해주기를 요청함.
- 이란은 내년 한-이란 수교 60주년으로 알고 있으며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함. 한국내 이란 계정 해제 등 정부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며, 외교부 주관으로 이란 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축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람.
- 이란 주요 발주처 인사를 GICC에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함
- 베트남 몽즈엉 화력 발전을 끝으로 9월 중 화력발전 사업 미참여 선언 예정, R&D센터 내 2개실을 중심으로 그린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등 신분야 중점 추진 중

■ 대우건설

- 리비아는 비교적 수익성이 좋고 우리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긍정적인 시장으로 분류됨. 이러한 좋은 시장을 놓치지 않게 리비아 측과 우호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리비아 내 BASE를 구축하고 발주처와 협상 및 수주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대우건설은 현지인을 지속 고용하여 관리 중이며 아국인 2명을 송출할 예정으로 발주처와 지속 네트워킹 중이며, 중단된 공사 재개 및 트리폴리 호텔 보수 매각 추진을 위해 리비아 입국이 한시가 급함
- 감사실 산하 ESG실을 신설하였으나, 현재 회사 매각 진행 중으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임

■ 현대엔지니어링

- 리비아 내, 시공 중 중단, LOA 수령 후 중단된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람
- 금년 기업공개 예정으로 ESG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환경·인프라·건축 등 조직을 망라하여 2개실을 신설하여 특정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임
-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분야 관심 및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데, 주요국의 경우 수인성 질병 관련하여 의료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등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은 상황

■ SK에코플랜트

- 인프라 PPP에 관심이 많고, 최근 중동지역에서도 PPP 사업 발주가 증가하여 관련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ESG 부문을 신설하여 환경·에너지 분야 추진, 직원 교육 증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 중,

‘23년 상장 목표로 ESG 평가에 대한 대비도 추진 중

■ 삼성물산

- 삼성물산은 건설 외 다양한 부문(상사 등)을 아울러 ESG 경영을 준비 중으로, 건설부문은 석탄화력 발전 미참여 선언을 완료했고, 환경 측면의 노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면서 층간소음, Safety Design, 현장 등에 탄소절감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 노력 중
- 보건·안전 기준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시켜, 낙후된 진출국 내 보건·안전분야 수준을 향상시키면 사회 개선으로 인식되는 순기능이 예상됨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해외건설기업 의견을 토대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대경장회의 1호 안건)”을 통한 해외건설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우리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 향후 계획

-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검토 등. 끝.

- 정책지원센터 -

붙임 : 주요 참석자 명단. 끝.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국토부	과장	오성익	
	정경인	서기관	
	이정식	사무관	
	이주원	주무관	
	해외건설지원과	곽인영	사무관
해건협	정책지원센터	센터장	정창구
	아시아실	실장	김종국
	아중동실	실장	신동우
	미주유럽실	실장	이승훈
KIND	사업총괄실	실장	김소웅
해외 건설 기업	현대건설	상무	김경수
	대우건설	상무	양성민
	삼성물산	그룹장	문상윤
	GS건설	팀장	박신준
	SK에코플랜트	그룹장	장우진
	DL E&C	부장	이성배
	현대엔지니어링	부장	김용범